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정호, 정호, 그리고 우리 집 대장을 떠나보내며, 동시에 그의 삶을 기념하러 모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 최민아입니다. 연애 3년, 결혼 18년.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베스트프렌드 같은 부부였고, 그 시간 동안 정호는 제 곁에서 늘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는 1970년 11월 23일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그는 바리스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누군가는 일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그는 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움은 평생”이라는 그의 원칙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한 알의 생두가 한 잔의 삶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그는 끝없이 탐구했습니다. 커피 블렌딩과 로스팅을 연구하던 노트는 늘 손에 묻어 있었고, 가열이 조금만 달라져도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밤늦도록 실험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박한 동네 카페는 12년 동안 이웃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동네의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고,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까지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름을 다 기억하던 따뜻한 인사, “아, 오늘은 진한 블렌드로 가시죠?” 하며 눈빛만 보고도 취향을 맞춰 주던 그 배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야”라며 활짝 웃던 에너지.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가족도, 이웃도, 그 카운터 앞에서 커피 향과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게 가장 선명한 밤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우리는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재즈 바이닐을 걸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늘 긁히는 소리가 겹치고, 우리는 즉흥적으로 라떼아트를 연습했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정호가 슬쩍 미소 지으며 컵을 돌려 보여주었는데, 그날따라 참 단정한 나뭇잎 하나가 우유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정직한 한 잔을 내리자.” 그가 늘 말하던 그 문장이, 그 작은 잎사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요령보다 성실, 과장보다 정직. 그게 정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호는 낙천적이고, 포용력이 큰 리더형이었습니다. 실패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기록보다도 완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등을 떠밀어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주는 그 풍경을 좋아했고, 본인이 먼저 페이스를 나눠 주었습니다. 자전거로 바람을 가르는 날이면, 목적지보다 함께 달리는 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말 캠핑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불을 지피고, 가장 늦게까지 별을 올려다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재즈 바이닐을 조심스럽게 턴테이블에 올리고, 아이들 앞에서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웃게 하자”는 그의 또 하나의 원칙을 실천하듯, 가장 먼저 우리를 웃겼습니다.

그의 카페에는 커피만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창업 멘토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돈 얘기보다 먼저, 왜 이 일을 하려는지부터 적어 보라.”는 그의 말은, 따뜻하지만 정확한 조언이었어요. 장비 이야기 전에 사람 이야기를, 수익 계산 전에 꿈의 방향을 물어보던 멘토. 실은 그게 정호가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커피든 사람이든, 먼저 귀 기울이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능성을 믿어 주는 것.

가족에게 그는 말 그대로 우리 집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라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주고 마지막에 결정을 미는 사람이었죠. 우리 딸 수민이, 고2의 길 위에서 가끔 흔들릴 때, 아빠는 “선택은 너의 것,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라고 했지. 그 말이 네 등을 받쳐 주었을 거야. 우리 아들 진우, 중3의 예민한 계절에 너에게 아빠가 가르친 건 체육관의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지. 신발끈을 다시 묶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 너 기억하지? 그리고 코코. 현관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아빠 발목에 꼬리를 감던 너의 모습에, 아빠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곤 했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 작은 순간들 속에 담긴 큰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소리 내어 세어 보려고 합니다. 정직한 한 잔을 내리자는 다짐. 그래서 쉽지 않을 때 돌아가고 싶은 기본기를 잃지 않는 태도.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웃게 하자는 습관. 그래서 마음이 닫힐 때도 먼저 미소를 건네는 용기. 배움은 평생이라는 믿음.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루를 재는 방법. 이 세 가지 문장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가훈이 될 겁니다.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상실만을 이야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기념합니다. 빗속에서도 셔터를 반쯤 내리고 불을 밝히던 그 밤들,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던 그의 인사,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던 그 발걸음, 그리고 가족을 세상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던 마음. 그것이 우리가 기리는 정호의 삶입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수민아, 진우야. 아빠가 늘 말했지. 길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 아빠의 방식으로 가자. 먼저 이름을 불러 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는 사람으로. 실패했을 때는 마라톤의 첫 킬로미터처럼 다시 호흡을 고르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한 발짝만 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엄마는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걸을 거야. 우리 셋은 대장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끌 거고, 코코는 늘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 거야.

이웃과 손님,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이 사랑방처럼 찾아와 주셔서, 그 공간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안부가, 그의 하루를 완성했습니다. 부디 오늘 이후에도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 주세요. 주저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주고, 향기로운 한 잔을 나눠 주세요. 그건 정호가 참 좋아하던 방식의 추모이자, 그가 꿈꿨던 동네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 예식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정호가 즐기던 ‘비 오는 날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예정입니다. 빗소리를 닮은 브러시 드럼, 베이스의 묵직한 발걸음, 피아노가 떨어뜨리는 작은 조각들. 그 음악 사이사이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의 웃음과 숨결이 스며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가 남긴 문장을 한 번 더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한 잔. 하루에 한 번의 웃음. 평생의 배움.

정호, 사랑하는 우리 대장. 당신은 우리에게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 주었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옹으로 이끄는 법, 더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걷는 법을. 당신이 떠난 자리에 공기가 달라졌지만, 당신이 남긴 길은 또렷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불을 지피고, 이름을 부르고, 한 잔을 정직하게 내리겠습니다.

고마워, 정호. 우리의 지난 21년,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은 계속 우리와 함께 걸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재즈를 틀고, 우유 거품 위에 조심스레 나뭇잎 하나를 그려 넣을 때마다. 우리가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에서 서로의 등을 가볍게 떠밀어 줄 때마다. 우리가 불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 볼 때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이제, 당신을 사랑으로 놓아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으로 계속 품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식대로. 오늘 이 자리를 채워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정호의 삶은 더 환했고, 그의 한 잔은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 대장, 잘 다녀와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